

## 인릉산 자원식물 식생에 관한 연구

박석근, 황경선, 황환주

신구대학 도시원예과

구룡산(九龍山)과 대모산(大母山)을 마주하고 있는 인릉산(仁陵山)은 서울시의 남쪽과 성남시에 걸쳐 있는데, 대동여지도(大同輿地圖)에는 천림산(天臨山)으로 표현돼 있으나, 이 산 북쪽에 위치한 순조의 능인 인릉(仁陵)의 조산(朝山)이 되기 때문에 인릉산이란 이름이 붙여진 것이나 이 산 자체에는 특기할만한 사적은 없다.

인릉산의 정상은 해발 326.5m의 그리 높지 않은 봉우리로 능선 북쪽의 서울쪽은 예비군 훈련장으로 돼 있어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고, 그 남쪽인 성남시 방향이 금번 식물상을 조사하려는 신구대학 부속 실습농장으로 그 밑쪽에 유리온실과 비닐하우스, 자원식물전시포 등이 설치되어 앞으로 조성될 신구식물원의 전위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지역은 앞에 펼쳐진 대왕저수지를 바라보며, 별로 경사가 심하지 않은 양지바른 사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은 신갈나무를 비롯하여 상수리나무, 서어나무 등의 낙엽활엽수로 이루지는 2차림인데 간간히 소나무가 잔존해 있는 상황이며 상당기간 일반인의 출입이 극히 적어 이곳의 생태계는 비교적 잘 보존돼 있는 편이며, 토심이 깊은 위에 떨어진 낙엽이 쌓여 이대로만 두면 암석이 들어난 능선부를 제외하면 머지 않아 신갈나무나 서어나무의 극상림으로 발전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바로 밑에 나있는 차도가 확장 공사중에 있고, 대왕저수지 부근에 음식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많은 외래수종과 원래 이 곳에는 자생하지 않았던 식물들이 심겨지는 등 많은 인공이 가해져 점점 원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있다. 더욱이 인간 간섭을 많이 받은 곳에는 서양등골나물을 비롯한 외국원산의 귀화식물(歸化植物)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조사는 실습농장 부지의 삼림지역(森林地域)에 한하여, 자생하거나 식재된 관속식물(管束植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았다.

1. 1998년 3월부터 11월까지 5회에 걸친 식물상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볼 것 같으면 인릉산 신구대학 실습농장의 관속식물은 92과, 267속, 382종, 1아종, 59변종, 3품종으로 총445종류가 확인되었다. 그 중 한국특산식물은 4종이고, 분포 북한계종

과 분포 남한계종이 각각 1종씩이며,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식물이나 보호식물은 없었으나 산림청이 지정한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이 1종 있었다.

2. 이 지역은 매우 한적한 곳이었으나, 근래에 본 지역 앞에 도로가 확장되고 있고 음식점이 들어섬에 따라 앞으로 커다란 변모가 예상되며, 신구대학 부속농장은 식물원으로서 각광받는 장소로 탈바꿈될 것이다.
3. 현재 이 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귀화식물은 23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많지 않은 편이었으며 귀화율은 5.4%로 비교적 다른 지역의 야산에 비하여 낮은 편이었다.
4. 본 지역은 현재 신갈나무와 서어나무 등을 주로하는 2차림으로 잘 보호하면 머지않아 신갈나무나 서어나무의 극상림으로 천이될 것이므로 가능한 한 보존하면서 개발은 최소화하는게 좋으리라 사료된다.